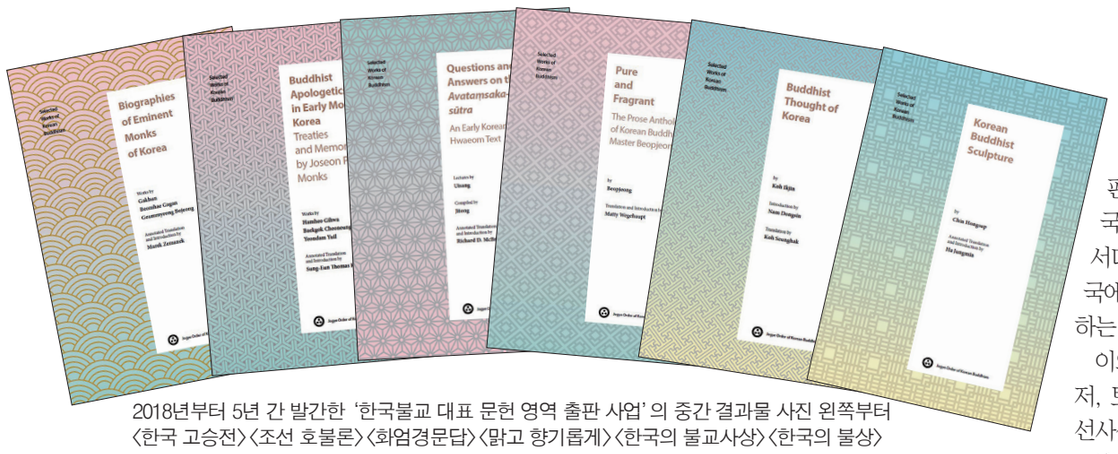
韓불교 대표 문헌들 영역본으로 '재탄생'

조계종 영역편찬위원회 영역본 6종 중간결과물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2018년부터 5년 간 발간한 '한국불교 대표 문헌 영역 출판 사업'의 중간 결과물 사진 왼쪽부터 〈한국 고승전〉〈조선 호불론〉〈화엄경문답〉〈맑고 향기롭게〉〈한국의 불교사상〉〈한국의 불상〉

한국 고승전 · 조선 호불론 등
역사 · 사회 · 교학 고전서 6종
국내외 석학들 영역자로 참여
4종 발간 예정…총 10종 완간

한국불교 대표 전통 · 현대 문헌 6종이 영역본으로 재탄생했다.

조계종 한국불교대표문헌영역편찬위원회(위원장 원행, 조계종 총무원장)는 "한국불교의 정신적 우수성과 독창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진행하는 '한국불교 대표 문헌 영역 출판사업'의 중간 결과물인 6종의 영역본이 발간됐다"고 7월 21일 밝혔다.

지난 2018년 시작된 '한국불교 대표 문헌 영역 출판사업'은 전통 문헌 5종과 현대 문헌 5종 등 10종의 도서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조계종은 사업의 진행을 위해 편찬위원회를 비롯해 운영위원회(위원장 서봉, 교육부장)와 기획편집위원회(위원장 김종욱)를 각각 구성했으며, 실무는 교육원 불학연구소에서 담당했다.

편찬위원회는 2018~2019년 문헌을 선별하고 번역자와 감수자를 발굴 · 선정했다. 번역자와 감수자는 한국불교를 전공하는 해외 석학들이 대거 참여했다. 주요 번역 · 감수자로는 리차드 맥브라이드(Richard McBride, 하와이 브리엄영대학), 마렉 제마넥(Marek Zeman, 체코 프라하 카렐대학), 토마스 김(Thomas Kim,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 메티 베게하우프트(Matty Wegehaupt, 미국 미시건대학), 토르스텐 트라울젠(Thorsten Traulsen, 독일 보쿰대학), 존 조르겐슨(John Jorgensen, 호주국립대학), 안준영(미국 미시건대학), 김성욱(미국 콜럼비아 대학)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영역본은 △〈한국 고승전〉(각훈 외2 저, 마렉 제마넥 역)△〈조선 호불론〉(함허기화 외2 저, 토마스 김 역) △〈화엄경문답〉(의상 저, 리차드 맥브라이드 역) △〈맑고 향기롭게〉(법정 저, 메티 베게하우프트 역) △〈한국의 불교사상〉(고익진 저, 고승학 역) △〈한국의 불상〉(진홍섭 저, 하정민 역) 등으로 2020~2021년 출간된 것들이다.

발간된 영역본 〈한국고승전〉은 〈해동고승전〉〈동사열전〉〈조계고승전〉의 편집본으로 고려 후기부터 조선 후기까지 고승전에서 중요한 선지식들의 전기를 채록했다. 〈조선 호불론〉은 〈현정론〉〈간폐석교소〉〈상한능주필수장서〉의 합본집으로 조선시대 호불론을 엄선해 수록했다. 〈화엄경문답〉은 의상의 강의를 제자 지통이 정리한 것으로, 화엄교학의 핵심 주제에 대한 문답이 주를 이룬다. 〈맑고 향기롭게〉는 법정 스님의 주옥같은 수필 50선을 엄선해 영역한 문집이다.

현대 불교학자 고익진의 논문 4편을 엮은 〈한국의 불교사상〉은 한국불교 철학에 대한 대중적인 입문서다. 진홍섭의 〈한국의 불상〉은 한국에서 조성된 각 시대의 불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월인천강지곡〉(세종대왕 저, 토르스텐 트라울젠 역)과 △〈한국 선사상〉(진정 천책 저, 헨릭 소렌슨 외 1 역) △〈선문정로〉(퇴옹 성철 저, 안준영 역) △〈선의 세계〉(고형곤 저, 김성욱 외1 역) 등 4종은 순차적으로 발간될 예정이다.

영역본은 한국불교문화를 알리기 위해 국내외 도서관 및 연구기관과 저명한 불교학계 학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이와 함께 전자책과 PDF 파일로 제작, 조계종 영문 홈페이지에 업로드해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계종 한국불교대표문헌영역편찬위원회는 "이번 번역서 출간을 통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우수한 한국불교 문화와 사상을 해외에 소개하고 그 사상과 문화 전반에 대해 활발히 논의할 수 있는 지적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국내에 안정적인 영역출판 시스템을 확립하고, 향후 영어를 비롯한 각종 외국어로 번역하는 사업 추진에도 탄력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마음 회통', 종교대화 새로운 비전 제시"

대행선研, 7월 16일 계절발표회…대행선 · 종교다원론 연결 탐색

"원효 스님의 일심사상과 같이 대행 선사의 한마음 사상은 이웃종교를 가장 넓게 포용할 수 있는 바탕과 체계를 갖춘 사상이 되었다. 회통의 모습에서 새로운 종교간 대화의 비전을 찾을 수 있다."

대행 선사의 가르침 속에 함축된 종교관을 현대 종교다원주의 담론과 관련해 탐색하는 발표가 진행돼 눈길을 끈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은 7월 16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에서 제12회 계절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에는 김용표 동국대 명예교수가 '묘공 대행의 이웃 종교관과 종교다원주의'를 주제로 발표하고, 허우성 경희대 명예교수, 김호귀 동국대 HK교수가 논평했다. 이어 조윤호 전남대 교수가 '화엄 · 유식 · 선의 관계론 재고'를 주제로 발표했으며, 부산대 교수 도업 스님과 박보람 충북대 교수가 각각 논평했다.

특히 김용표 동국대 명예교수는 '묘공 대행의 이웃 종교관과 종교다원주의'에서 대행 선사의 가르침 속 총 8가지 측면서 다원주의 성격이 있음을 분석했다.

김 명예교수는 △종교가 아닌 생명과 삶의 진리로 종교를 제시한 점 △모든 성인의 진리를 한마음으로 회통하여 이해하고자 한 점 △부처님 지혜에 입각해 대승 공사상의 절대 진리 개념서 벗어난 열린 종교관인 점 △한마음 중심주의가 현대 다원주의 사상가인 존힉의 종교다원주의와 구조상 유사한 점 △무조건적인 타종교 수용이 아닌 한마음 안에서 회통하는 다원적 포괄주의인 점 등을 예시로 들었다.

김 명예교수는 "대행 선사는 부처님과 역대 선지식들의 포용적 이웃종교관을 계승하면서 사대성인들의 가르침이 한마음에 있다는 '한마음 종교 기반론'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명예교수는 "이러한 대행 선사의 종교인식은 현대의 대표적인 종교사상가인 존힉이 제창한 종교다원주의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불교 테두리도 초월하는 열린 진리의 지평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명예교수는 대행 선사의 '예수의 부활'을 해석한 법문에서 열린 지평이 드러난 부분의 예시를 찾았다. 대행 선사는 2017년 국외지원법회에서 부활절에 대해 "그 의식 자체 영혼만은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영원히, 오늘이 오늘이야. 여러분이 지금 살아계시는 한 예수도 부처도 다 살아있는 겁니다. 오늘도 부활절, 내일도 부활절이에요"라고 설했다.


김용표 명예교수가 7월 16일 대행선연구원 제12회 계절발표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명예교수는 "결국은 육신의 부활이 아닌 생멸을 떠나 한마음으로 사는 것, 생사를 여의는 것이 참 깨달음이자 부활이라고 해석하는 것"이라며 "틱낫한 스님, 달라이라마도 강조하듯 결국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사는지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했다.

김 명예교수는 세계 종교 갈등 해소에도 이러한 가르침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그는 "대행 선사가 추구한 종교 대화는 상대 종교에 대한 지식의 교환이나 비교의 차원을 넘어서는 심층적 영성의 대화"라며 "종교가 다른 상대를 만났을 때도 한마음과 더불어 우주 만물이 하나가 되어 만난 것으로 생각했다. 이는 다른 종교와의 관계에서 구체적인 답을 내려준다"고 평가했다.

이날 계절발표회 개회식에서 이사장 혜수 스님은 이날 발표가 종교간 대화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한마음선원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음을 말했다. 이에 발맞춰 한마음선원은 대행 선사의 열반 10주기를 맞아,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세계 각국 대사들을 초청하는 국제학술대회 '뉴노멀 시대, 지구촌 공생의 삶 : 마음, 과학, 종교'도 준비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혜수 스님은 "5월 진행된 대행선사 열반 10주기 기념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한 세계불교학자들의 발표 내용도 세상의 고통을 함께 보고 마음을 모으는 것이었다. 이렇게 학술대회서의 다양한 주장도 결국 하나의 마음으로 통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며 "오늘 발표된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내용이 향후 세계종교의 대화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알려 준다"고 말했다.

안양=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서산 부석사 불상 취득권 국제법 · 민법으로 살핀다

7월 27일 학술 집담회 개최

서산 부석사 관음상의 취득권 성립을 국제법과 민법의 관점에서 살피는 학술 집담회가 열린다.

제21대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문화유산회복포럼(공동대표 박범계, 윤영석)'은 7월 2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제법과 민법으로 보는 서산 부석사 관음상의 취득권 성립에 관해'를 주제로 국제학술집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학술집담회는 서산 부석사 관음상에 대해 지난 6월 15일 대마도 관음사 주지가 대전고법에 출석해 "부석사의 동일성과 선의취득 그리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 관음사에 있다"는 주장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약탈문화재의 원상회복에 있어 국제사회의 원칙과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주제는 '부석사 불상의 취득권 성립에 관한 법리적 검토'를 주제로 미국에서 온 찰스 댄지거 변호사와 김병구 법무법인 우정 대표변호사가 주제 발표한다. 제2주제는 '국제사회의 문화유산회복운동의 원칙과 방향'을 주제로 김경인 前 튀니지 대사와 케이트 리 교수가 발표한다. 주제발표 후에는 종합토론을 통해 대마도 관음사의 진술에 대한 의견을 정리할 예정다.

박범계 국회문화유산회복포럼 공동대표는 "집담회를 통해 약탈품의 환수 문제에 있어 상충하는 법리 적용에 대한 논거를 마련하고, 전세계 피탈 문화재 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선례를 제공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행사를 주관하는 이상근 문화유산회복재단 이사장은 "단 하루만이라도 부석사에 봉안하게 해달라는 서산시민, 부석사 신도의 간절한 염원의 힘으로 오늘날까지 봉안 운동을 전개했다"면서 "지난 6월 대마도 관음사의 진술은 허구에 기초한 것이고 약탈문화재의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원칙에도 맞지 않은 일이다. 이번 집담회를 통해 문제의 핵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대마도 관음사에 봉안됐다가 도난돼 한국에 들어온 서산 부석사 관음상.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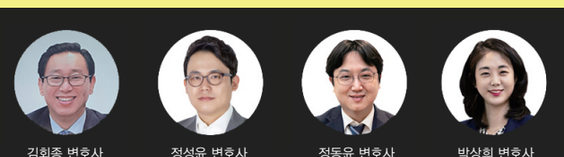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종도모집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내 외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과 간부스님에 한하여 추대장 및 위촉장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개인 사암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금송
T.055)747-1300 F. 055)747-1307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293번길 7, 301호(유니언빌딩, 신안동)


김회종 변호사 (전 진주지청장)
정성윤 변호사 (민사/가사 전문)
정동윤 변호사 (형사/부동산 전문)
박상희 변호사 (이혼/형사 전문)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종도를 위한 고문변호사"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 총 본 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0025 / 팩스 055)867-8009
■ 서울 총무원 : 전화 02)739-4780